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성경연구원 2학기 8월 29일 개강 매우고 행하고 전하는 전국일꾼

'99 제2학기 성경연구원이 8월 29일 개강된다. 주간성경공부 및 직분자 양육반, 그리고 제1기 교사양성부 및 제2기 찬양대원 양성부 등이 일제히 시작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과정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신청은 교육관 1층 교육국에서 접수한다.

(1) 주간 성경공부

• 크로스데이반:
크로스데이2화, 오전 10시, 조문환 목사
크로스데이3화, 오후 7시, 차병훈 목사
크로스데이11(수, 오후 1시 40분, 김동석 목사)
크로스데이12(수, 오후 1시 40분, 박경현 목사)
크로스데이3(수, 오후 1시 40분, 권영관 목사)
크로스데이4(수, 오후 1시 40분, 김희수 목사)
크로스데이1(목, 오전 11시 30분, 이송학 목사)
크로스데이4(목, 오후 7시, 권상현 목사)

• 본문성경공부반:

학개(화, 오전 11시 30분, 정갑신 목사)
고린도전서(화, 오후 7시, 이준경 목사)
레위기(수, 오후 1시 40분, 이종대 목사)
역대상하(수, 오후 1시 40분, 김진식 목사)
에사(수, 오후 1시 40분, 정해성 목사)
마가복음(수, 오후 1시 40분, 정현민 목사)
일사경전(수, 오후 1시 40분, 송환창 장로)
야고보서(목, 오전 10시, 김동화 목사)
야고보(목, 오후 7시, 서광진 목사)

(2) 직분자 양육반

• 전사: 여성구역장: 권활빈:
수, 1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외 교육 목사
• 남성구역장반:
수, 2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외 교육 목사
• 안수집사반:
월, 새벽기도회 후, 김희수 목사

(3) 교사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 교과목:
신약개론(이종성 목사)
구약개론(김필수 목사)
선교의 이론과 실제(이송수 목사)
주일학교 행정(서광진 목사)
반목회(정현민 목사)
심방론(조철진 목사)
신학개론1, 2(김진식 목사)
교회론(권상현 목사)
성경과 구원 상담(김희수 목사)
교양음악(조문환 목사)
교양 작성법(이준경 목사)
전도의 이론과 실제(김재철 목사)
예배론(박경현 목사)
공과교수법(정갑신 목사)
세상자 관리와 양육(정해성 목사)
교사론(이종대 목사)
학생 발달이론(권영관 목사)
교회사(김동석 목사)
성경해석의 원리(김병태 목사)
주일학교 부속소개(2기 부처)
교생실습(2주간)

(4)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9:00~21:20
• 교과목:
찬양대원의 자격(조문환 목사)
초급시창, 중급시창(이송수 집사)
교구시창(고병석 선형)
기초이론(고병석 선형)
복식호흡과 발성(강인구 집사)
찬양대원론(이준경 장로)
찬송가학 개론(김철문 집사)
발성적 합창지도(강인구 집사)
찬양의 실제(강인구 집사)
찬양대 입대 오디션(강인구 집사)
영적 예배와 찬양(박경현 목사)

제3회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 마쳐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제3회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가 3박4일간의 모든 일정을 은혜스럽게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강습회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인천, 용인, 시흥 등 전국 각지에서 2백여명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지회자, 반주자, 이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참가하였다.

중소 교회 찬양대를 돕고 섬기기로 지난해 여름 시작된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적합하게 찬양 사역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좀 더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강습회에서 찬양론, 발성론, 피아노 및 오르간 반주론, 성가합창, 성가대 운영, 발성론, 생지화합, 교회음악의 위기, 실기 개인레슨, 비디오 찬양감상 등 실기와 이론이 병행되는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았다. 또한 말씀 강사, 부흥회, 그리고 금요집회에 참석하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서의 길이를 더하는 은혜를 누리려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님 사랑 실고 수해 지구 다녀와

지난 8월 10일 10일 부흥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합하여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수해를 당한 경기도 연천과 문산 지역을 방문하여 연천, 철원, 문산, 파주지역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였다. 아울러 이들 450가정에 쌀, 고추장, 된장, 숙주, 생채를 전달하였으며, 침수된 교회 두 곳에도 구제현금을 전달하였다. 뜻밖의 수해를 당한 이들이 역경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져야겠다.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 이제 한 주 앞으로

‘성경의 회복: 성경 해석과 복음적 설교’를 주제로 진행될 제2회 전국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한 주 앞(8월 23일-25일)으로 다가왔다. 미국 리폼드신학원의 리처드 프레스터(구약학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교할 것인가)와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리처드 크레이건(당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존하라)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금번 세미나는 한국 교회의 설교의 ‘복음적 갱신’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원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부탁하면서, 홍보 및 자원봉사자로 섬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보 대상은 성도 개인이 아닌 사울 경기 및 지방의 목회자들이며, 봉사 내용은 해당 목회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성도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한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수고를 통해 금번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크신 은총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로 동참해야 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구내전화 472-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속되는 농어촌 전도사역 6, 12, 13교구

금주에도 각 교구의 농어촌 전도사역이 계속된다. 6교구가 8월 30일-9월 1일에 강원도 정선에서, 12교구가 8월 23-25일에 강원도 동해에서, 13교구가 9월 8-10일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실시한다. 이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지역 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이 곳곳에서 이어지도록 기도의 후원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당회원 기도회

8월 16-17 중현기도원

본 교회 당회원들이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8월 16, 17일 중현기도원에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16일 저녁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10시부터 기도회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 교회로 돌아와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안수집사회 여름수련회

주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강사: 김희수 목사, 이송학 목사
날짜: 8월 17-18일
(17일 새벽기도회 후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 7시 기도원으로 출발)
장소: 중현기도원
참석: 부부 동반으로 참석 요망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기간: 1999년 8월 15일(오늘)까지
시간: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철

'99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 훈련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성교훈련)

일시: 8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 8월 21일(토)

장소: 금요집회 참석 후 중현기도원
(금요집회 전 반담방비 안내석으로 집합)

기타: 대학, 대학원 지원자 중
신규 신청자는 면접시험 실시
(8월 20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

★ 중·고등학생(성경훈련)

일시: 8월 22일(대음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장소: 교육관 109호



김 창 인 목사

하나님만이 구원의 신

(이사야 45:18-25)

“...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 나우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첫째로, 사람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심은 자기의 힘으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벗어 나지 못합니다. 근심은 건강, 자식, 사업 등 일 가지 진로 침입해 옵니다.

둘째로, 사람은 질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겪어지고 있습니다. 질병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암도 밝혀진 것만 60여 종류이고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 다. 이렇게 많은 질병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셋째로, 사람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넷째로, 사람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도 하루에 15만 명이 죽어 가는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찰서, 재판소가 생기고, 벌 것이 다 생겨도 죄는 축소되지 않고 더욱 지능화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생을 합니다. 물어 보아도 안되고 할을 세 보아도 안되고 참으려 하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용감한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인간입니다.

2.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로, 인간은 지혜가 모자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원인과조 모르니 인간이 어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둘째로, 인간은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할 자는 땅 위에는 없습니다.

3. 인간을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님이 시며 또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18절)

“견고케 하시되” 하나님은 넓은 천지를 튼튼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도 무너지지 않고 별의 세계도 무

너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돌아보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의 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쏟아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튼튼하게 붙들어 매셨습니다. 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줄로 매어 놓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질서있게 지으셨고 또한 풍부하게 지으셨습니다. 5백년 전, 천 년 전 술장부를 팔 때에 전 통들은 없었으나 천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있었습니 다. 다만 인간의 지혜가 모자라서 천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못 산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술장부를 팔때에도 천기가 있었으나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주위에는 천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 다. 둘째로,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 다.

“...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18절)

사람으로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려고 지어 주셨습니 다. 저 태양이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저 별들이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셨습니 다. 이리하여 인간은 세계와 우주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너 무나 갑작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신 목적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지어 주신 것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좋았겠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났습니 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나뭇 가지가 꺾여 떨어지면 떨어진 죽은 것입니다. 아직 꺾이지 않아서 산 것같이 보이지만 꺾여 떨어 지자 죽은 것이 드러 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 나는데 심장은 뛰고 죽음과 지옥을 향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우주를 지으셨다는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 러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 나면 결국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 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20절)

아주 버리지 않고 찾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번역하여 멸망을 받게 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어 찾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멸망가면 살피 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 동산에서 아담 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가 아직도 역 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 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방법으로 지금 도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잘 살려면 나와 친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 거 짓말도 주 하고 한탕해야 큰 돈을 좀 만 진다” 마귀는 지금도 천사의 말을 쓰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때에 마귀는 가시돌런 동물을 들고 “네 는, 내 말을 안 들었냐?” 하고 공갈을 치면서 꾀잡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분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귀는 멸망의 때 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리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이런 틈바구니에서 삽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니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20절)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오라고 불러 주십니다.

“... 나우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20절)

이 말씀을 해석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소아시아의 전 지역을 정벌할 때에 아프리카에서 인도 에까지 모든 나라가 잔전하여 고레스 왕을 찾아와 항복하였습니 다. 그러한 때에도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망명민 같은 자를 마 나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 “너희가 우상만 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살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희의 욕심이 사는 길을 하나님 이 세우신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자신의 힘이 모자라다고 우상의 힘을 의탁하고

고레스 왕을 끝까지 거역하다가는 영육이 아울러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을 떠났으니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수고는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이미 죽은 사람까지 전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찾아와서 회개하고 자기를 믿은 고난과 다른 사람들 믿던 것만 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합 니다. 그 때야 성경의 권능을 받아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친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설 때에 영육이 영광스럽게 됩 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수 없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언덕아, 나를 가리워라. 산아, 나를 가리워라” 하여도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고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십니다.

4. 결 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은 사람이 복을 받아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님이 지으신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다가 세상을 이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에 삽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권에 반역하는 자는 영혼도 살 길이 없고 육신도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그 날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조차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범죄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엿히 설 때는 자로서 이 땅 위에 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 배**



김성권 목사

우리의 복음

(디모데후서 1:12)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핵심은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 여기에서 ‘이를 인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절로 돌아가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

의지할 바가 없었고, 다른 위로와 기쁨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득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 위에 비쳐지는 ‘우리의 복음’의 장엄함입니다.

오직 믿은 것뿐

복음을 받기까지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와 권

과 깊이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섬기는 주님을 실천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자신을 기쁨으로 의탁하십시오.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의탁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매우 합당하고도 사려깊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에게 의탁한 모든 영혼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바울은 설복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와 능동하신 구원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완전하신 지체로 모든 위임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담하는 모든 무거운 시련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기꺼이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고 힘이었기 때문입

니다. 지금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쁘고 유쾌합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그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내가 확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수직스러울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니다. 감옥 밖에서는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니다. 조롱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니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에 이르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니다. 왜입니까?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그가 소유한 천상의 위치에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러한 처지에 있을수록 십자가의 진리는 더욱 빛났습니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학대와 어두운 그늘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마음은 감사를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자기가 의뢰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목상한 이 본문이 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경배의 기쁨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파수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두려움없이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용감한 확신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딤후 1:11).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곧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딤후 1:10)고 하신 말씀에의 해 확증된 복음을 말합니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 동시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상한 역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다’는 말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는 은혜와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장엄함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반포되는 메랫음과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말해진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서 심판의 날까지 그를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이는 설령될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 안에 거한 사람들을 붙들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위탁한 것으로 인해 큰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세를 믿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언약성으로 인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 곧 우리들 치유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조건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의사의 손길에 의탁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기 양을 보살피시고 먹이실 참 목자의 손길에 맡겨졌고,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조종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신 예수님에 의해 탄원되되 보호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드렸던 것입니다.

실천적인 배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되 자신의 것뿐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밖의 여러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들은 바를 들은 복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곧 “그날까지” 예수께서 지키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능동하신 하나님께의 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의식과 세속의 압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함이라

파수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두려움없이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용감한 확신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고를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성취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

세계 선교

수단 단기선교팀 현지 보고
하주십에 '드디어' 교회 윤이 열렸다

살림! 충전교회 성도님들께 문안인사 드립니다.

카르툼에서 버스로 약 40분 걸리는 하주십이라는 곳에 있는 땅 두 필지가 새로운 교회 부지로 검토되고 있던 중 그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그 땅 주인과 변호사를 만나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화요일에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뜻밖의 사태를 당했습니다. 카르툼 경찰과 마을위원회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한 것입니다. 급히 전상을 알아보았지만, 경찰과 마을위원회는 서로 아는 바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아무런 대응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같은 부지에 있는 한인교회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야 이슬람 국가에서의 교회 박해가 이런 식으로 무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부지 매입은 예정대로 화요일에 성사되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회 폐쇄를 풀어 보고자 했지만 수단 경찰과 마을위원회의 비협조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에는 더 이상 어쩔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곳 00지역의 협조로 그 회사 사장이 보증하고, 한인교회 대표로서 제가 보증한다는 서류를 마을위원회와 경찰에게 제출한 후 수 시간만에 교회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교회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마을위원회의 위원 등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해 옵니다. 결국 그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주십으로 물품을 나갔으며 금요일에는 임시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 현지인교회 리더들과 젊은이들 중에 아픈 사람들(메켈렉, 간염,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이 많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인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도소 교회 설립 공사, 두 곳의 성경학교 학사진행 및 재정관리, 야간 학교와 어문학교 운영, 현지인 어린이 주일학교 운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 있게, 즐겁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티암 선교전도사 올림

이웃 사랑

주님 품에서 성장하는
학생들 보며 보람 느껴

자신들의 의지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사랑부는 이들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매우 일 데리고 오며, 때러다 주어야 하는 부수다. 그래서 사랑부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후 11년 동안 차량을 통한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사랑부에서 운전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김봉호, 이희범, 최찬환, 한덕구, 송수일, 김은철 집사님이다. 이분들은 모두 45년 동안 사랑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형 버스와 중고차 2대가 있어서 3분은 교회에 올 때 차를 몰고 나머지 3분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차를 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15년용 봉차와 2대가 있는데 2분씩 돌아가며 차를 몰고 한 분은 사의 택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 오고 데려다 주신다.

매주일 봉사는 사랑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위해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도에서 예배가 끝난 후 12시 30분에 교회를 떠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날의 차량 봉사는 끝난다. 사랑부 2대의 차는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등 두날이 가고 중간 중간에는 있는 아이들의 집을 들러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 지체아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 속도도 늦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차가 움직일 때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고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찾아 갈 수 없어서 매번 같은 장소에 내려 주어야 한다.

사랑부에서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차가 모라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데 데리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이

다. 예전에는 안락까지도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차가 부족해서 가지 못했다. 따라서 차량 봉사자들이 더욱 많아져 더욱 많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업이 운전이라 주일까지 또는 수련회와 같은 경우 평일에도 운전대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힘든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마음을 위한 교회에 열심이나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가서도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서로 정을 나누며 사랑이 더해진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박주영 기자)

외선부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선부의 주일 집회 시작은 9시 30분이지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은 사트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으로 시작된다. 외선부 차량 봉사자는 모두 6분이고 운전자들은 안산, 천안, 평택, 용인 1코스, 의정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적성면, 동두천, 포천시 2코스, 경기도 광주 3·4·5코스, 수원 6코스로 편성되어 있다.

차량봉사자들의 팀장은 이창권 집사님으로 헌신한

파키스탄 단기선교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

민 형(대학부)



파키스탄 단기선교 사역 중 나에게 가장 새롭고 충격적이라 다가온 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하고 좁은 건물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은 우리의 경건한 예배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기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 두 손을 볼게 하시고 다 알아들으시는 듯하였지만 가끔씩 들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도 나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사역을 마무리해 가는 어느날 저녁 목사님께서는 “9월 17일 전도 하러 간다.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득 저의 머릿속에는 “내일의 무슬림이 있는 이곳에 내가 어떻게? 죽으라는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얼굴을 돌아보니 예상대로 조금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뜨겁게 내리찍는 태양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을 들고 돌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 외국인인 나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했다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금방 얼굴 표정이 바뀌어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을 즉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잠시라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한 땅 가운데서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된 봉기는 외선부가 대동하기 시작할 때 애쓰시는 한 부부 집사님의 헌신에 감동되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초기에는 외국인들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수만큼 미국인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몇몇이 있어서 오해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공장주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빼돌린다고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장시간 운전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2년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하신다. 봉사자 중의 한 분은 운전 중 사고난 적이 있었다. 그때 상대의 목사님 가영이어서 별 다른 것보다 오히려 위로받고는 온 적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려 주셨다. 기쁨이 없어서 운전이 불가능할 때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그분은 세계 선교에 땀바라지하는 뜻이 많이 실현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차량봉사자들에게 주일 하루를 7-12시간 운전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그래도 야마로 졸림지만 세수하고 온 것 같아주고 차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을 볼 때는 이런 어려움을 잊게 된다. 그러나 차에 사람이 꼭 차 더 이상 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그들을 여러 차례 보면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나오길 기다린다. 봉사자들이 적어서 고사자들이 동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과 운행지역이 넓어서 예배시간이 훨씬 지나 도착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더 많은 헌신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차량봉사자들은 전쟁터의 최전방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분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도, 수입이 없는 이유에 나이어도, 그리스도의 헌신에 동참하는 기쁨을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다. 겨울 컴컴한 새벽에 얼음을 깨고 온 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두년간 2년간을 맡았을 봉사해 주신 집회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조옥진 선교전도사)

성도들의 발이 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 각 부서 담당 봉사자들의 헌신 -

친구

황성신(대학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네 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위해 그를 들것에 태우고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 위로 올라가 들것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인하여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막 2:1-5). 비록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그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성경의 매우 작은 부분에 그들의 믿음이 쓰여 있을 뿐이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있었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들을 믿음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친구들의 격려적인 믿음의 행동이 그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 다나온 제3집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 두 명의 초등학생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도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지낼 수 있겠나?" "근데요, 제가 뭘한 거한테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잘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전 날 친구를 만화시합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끝도 없는 질문이 생겼지만 어느 하나에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게도 친구를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의 영혼까지 구하는 데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메아리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친구가 어려울 때 나도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과 같은 절실함을 품을 수 있을까? 내게 친구를 만화시합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끝도 없는 질문이 생겼지만 어느 하나에도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게도 친구를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의 영혼까지 구하는 데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부 낙도전도에 참여하고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해 하신 주님

박고상(대학부)

대학부와 마찬가지로 고등부의 낙도전도도 주일 밤에 출발했다.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경성남도 동영에 도착했다. 3개의 교회로 나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미늘교회에서 기타 반주로 성경찬양 진행을 도와 주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조곤은 놀랬다. 대학부의 낙도전도가 때마침, 사위시절까지 있는 이곳이 정말 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의 편안함을 주신 대신 다른 것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둘째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역을 하러 가는 마을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 내일이면 온다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 저녁식사 후,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가게에서 술을 드시던 분이 다가와서는 마구 욕을 하고 화를 내었다. 비에 흠뻑 젖어서 메마름도 없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았다. 동네 사람과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후 감자리에 드는 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어떻게 내일을 보낼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잠들어버렸다.

셋째날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곳에 가셨다고 했다. 모든 일

정이 끝나고, 다들 모였을 때 몇몇 사람들은 헌터에서 눈물을 보이기가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는데 내 마음에서 생기가 다시 들며 마음을 더 새롭게 먹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감자리에 드는데 오늘 하루, 어제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역을 마치며 한 자리에 앉아 감사를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가실 전, 관광차 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가 진행되어지는 것들과 필 해야 할지름을 몰라 많이 힘들기도 했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헌터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의 고지식함을 어렵게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이겨내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그들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마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려운 광복들이 있어 있었으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의 신앙고백

이영우(고등부)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수련회, 제가 소중하고 생각되는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고 마음먹고 수련회에 들어갔는데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녁때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도 3박 4일이라는 부담감이 생길 때도, 하지만 제가 많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 붙디라. 힘들 때마다 선생님들의 기도고 있었고 주님의 손길 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은혜로 감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 주실 말씀이 기다리려고 마구 떨릴 정도였으니요. 전 결국 수련회 기간동안 주님 안에서 충분한 휴식도 취할 수 있었고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드셨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간접체험도 직접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유월절 제

협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세상 속에서,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신발을 벗고 걸어나니 기쁜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생각하며 걸던 그 길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낮아져서 다른 이의 발을 닦아 주며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교만을 잊었던지...

특히 마지막 밤의 밤하늘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그 고난을 생각하고 싶었던 날이, 우와!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감탄하며 이번 수련회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면 기대가 되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주님이 주신 나의 5년 뒤나 10년 뒤의 모습을 속대 주님이 지금부터 준비해 가시는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수련회는 평생을 살면서 기억에 마음 속에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배찬 회(고등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렁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비를 뚫고 주님이 먼저 임해라고 있을 거세다고 말을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 수 있었다.

전체 낙도팀은 총 30명으로 나누고 각 팀은 주어진 주님의 계획을 이루리 나갔는데 나는 통영양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팀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한 후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팀 안에서도 조를 나누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한두마을과 대방마을을 맡아 전도하게 되었다. 나는 먼저 기도하고 나름대로 친근하게 마을 분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전하기에 좋은 대상이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날수록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해 갔고 그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은 신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전도하는 동안 태풍이 불어왔다.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고 나갔기에 두려운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짐승과 미용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분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다. 셋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다 갓고 피곤하니까 하였던다는 나 오히려 감사했다. 비에 젖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마을에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날은 최종결실을 맺는 마을로 떠나게 되었다. 비록 20명이 체 안되는 한 미처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분들을 알게 되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할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였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그날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자신이 맡았던 사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또 복음 전하는 일만큼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음을 알았다. 서울에 도착하여 설에서 만난 낯선 분들의 생명이 적힌 수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되며 기대가 되었다.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통해 강건하게 붙들어서 온 시간들이 다 있었는 너무나 소중한 생각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 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린다.



선한 일을 찾습니다 - 선한 일꾼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충현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은사들을 소유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

다. 하지만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사해야 하였는지 알아보면 사실 막연합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학교 교사나 전양자를 소개받는 정도입니다. 또한 각 부서와 기관에서 그 일의 성격이 적합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해도

별다른 만남의 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개로 적당히 연결해서 분사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일꾼과 원하는 일 성도간에 적절한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주간충현)의 지면을 통해서

성도 개인은 자신이 분사할 수 있는 영역이나 달란트를 소개하고, 기관이나 부서는 어떤 달란트와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선한 은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과 부서는 적절한 일꾼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실)

하나님의 성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최 제 호(청년1부)



영아부때부터 충현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 왔던 저는 하나님께 '꼭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서원의 목표가 어린 나이에 목표치라고 생각을 해 오다가 교회의 건축을 주로 하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학도로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인가라는 갈등과 함께...

이때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꼭 하나님의 일이 목표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가능하더라는 짜릿

추기식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할 목적으로 서울에 잠깐 있는 동안 앞일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맞는 것일까. 그런 걱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께 무엇이죠?"라며 반은 어린아이의 부정과 같이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 때로부터 지금 방송 성우일을 하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충현 청년1부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기 전까진 아버지께서 건축하신 성전들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성우로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려 주곤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은 참으로 놀랍고 탄탄하신 계획으로, 보잘것없고 어린아이 같은 내 다리를 굳건하게 하고, 당신의 뜻을 담당하게 필치십니다. 흔히 그렇듯이 성우를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 좋다는 소리도 듣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성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 이런 더욱더 욕심이 남니다. 주님의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우로서 영원히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회당은 대로 교회 곳곳을 장식하고파

신 명 회(새가족부)

하나님은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미션스쿨로 인도하셨습니

다.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집 학교의 분위기로 인하여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면서 찬송가 부르기

를 즐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

다. 개인보다 단체 명예를 중요시했던 저는 학급 환경미화에 남다른 열의가 넘쳐 우린만 환경미화가 꼭 일들을 하고



받는 대로 찬양대에 들어가기

를 희망합니다. 연합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가락들이 감격스러운 곡조로 제 입에서 맴돌며

이 복음을 받으소서

박 철 구(안수집사, 청년2부 부장)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 백성들

최 값으로 영생을 날 앞에 선하건만 두 손을 내저으면서 반대하니 어이할고

고집불통 헛된 전통 해어날 줄 모르소서 어두움의 세력 속에 단단히 갇혔구나

밝은 빛 비추어 주건만 외면하니 어이할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 믿으면 되는 것이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지만은 한사코 반대만 하니 애석하여 어이할고

폭풍우를 무릅쓰고 복음 들고 나선다

젊음을 불사하면서 예수 사랑 전한다

망팔까지 이르러 중언 되라 하신 유언

되악말도 마다않고 말씀 들고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집집마다 찾아간다

농촌도 어머니 땅 도시도 아버지 땅

노인도 부모처럼 어린이도 친자처럼

하나님 사랑 안고서 불모지를 찾아간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줄 때 그저 준다

베드로같이 못건하고 바울처럼 말못해도

뜨거운 사랑 안고서 기도하며 전한다

임으로 전한 복음 전도지로 전한 말씀

주의 성령 역사하며 귀한 영은 변화시켜

택하신 주의 백성들 범세계로 보내소서

1999. 7. 28 경주 전도지역 중에

가서 제자 삼아와 부활하신 주의 말씀

가서 제자 삼아와 부활하신 주의 말씀

지혜들 소식 / 나를 바꾼 한마디

지혜들 소식

영아부

하나님이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만드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길 감사하여 함을 가르치며 아기들에게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보여 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마다 다른 맛을 내는 과일과 채소를 주시길 알려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식물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있던 것과 일이 변하여 오늘날에는 다른 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과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진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자세히 알려 주셨다.

(송혜경 통신원)

초등부

지각하지 않아요

지난 7월 한달 동안 지각하는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의 3분의 1정도가 매우 일찍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에서 통신문을 발송하였답니다. 이것은 적부터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에서 부모님들께서는 합시다라든가 조금 일찍 오셔서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미숙 통신원)

사랑부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원수업

사랑부와 초등부의 교원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부에서 평균적으로 주일에 15명 정도가 사랑부에 온다. 1부예배가 끝나고 초등부 학생들이 오는데 사랑부 학생들과 같이 극소수 목회자 같다. 그리고 같이 성경공부할 책자를 나르고 분반공부를 한다. 성경 이야기에 맞추어서 색도 같이 칠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다. 처음에는 사랑부에 온 초등부 학생들이 어색해 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같이 활동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숙해지는 것 같다. 2주 정도면 초등부 학생들이 교제하는데 2주째가 되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언제까지고 싶은 때 오라는 말을 하며 떠나 보내지마는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사랑부방 방문했던 초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가끔 보인다. 초등부 학생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멀리서도 "선생님" 하고 반갑게 인사한다. 그런 학생들이 요즘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게 너무 좋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도 행복할 것 같다. 초등부 부장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교원수업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주 두 주 아니 세 주로 끝낼 수도 있었던 교원수업을 이렇게 면밀히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자 통신원)

영어교육부

주한 미군 군중담 샌프토 대령

영어연에서 설교

영어교육부(주한 미군 장전체 장로)에서는 지난 8월 8일(8월 8일) 군중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제11. 샌프토 대령(Gary T. Sanford) 목사님을 초청하여 야고보서 3장 17-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중점을 나누며 뜻깊은 예배를 드렸다. 이튿날을 계기로 앞으로 주한 미군 목사님의 설교 또는 찬송과 그의 영어예배 시운찬양단의 상호교향 방문예배도 추진하며 더욱 원활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의논하였다.

(영어교육부 통신원)



나·를·바·꾼·한·마·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 유현(대학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절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 6:3)

대학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쯤만 해도 나의 신앙은 문제에 따라 좌우되는 그야말로 문제 신앙이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없어 하후하후가 편안하게 흘러갈 때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이었던 것이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표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던 중 한 선생과의 성경공부를 통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렇다. 내가 힘써야 할 목표는 흔히 생각하는 직업과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라도 당신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는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다'의 원어에 '행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듯이 그분의 성품을 아는 우리는 또한 그분처럼 행하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고민이 되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나는 나의 죄악된 성품을 뛰어넘어 그분의 성품을 나의 삶 가운데 발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까? 아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공부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게네시 1:26의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경학교

장 지훈

(유년부 교사)

제46회 여름성경학교는 준비가 어려웠던 것만큼 끝난 후 많은 기쁨을 갖게 한 성경학교였다. 세컨드 사건 이후로 닫혀진 학부모임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이 때보다 더 많은 기도과 열심으로 준비했다. 각 프로그램은 많은 선생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경학교를 만들기 위해 밤낮 깨까지 남아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다.

성경학교 시작에 앞서 교사자도회는 긴장감이 들 정도로 엄숙했다. 그러나 예배실이 들러진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양이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경학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제사를 이기신 예수님을 닮자'라는 주제 아래 각 프로그램들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전도사님의 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꿀이 되었다. 또한 각 시간을 이어준 찬양과 율동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동서노회 주회 교사강습회에서 첫 선을 보인 새로운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역시 천로역정이었다. 기존에 교육관 안에서 하던 것을 탈피해 과감히 교회 밖의 놀이터와 주차장을 이용했다. 7개조가 우선 앞모임을 풀고 보물을 찾아서 지정된 방으로 갔다. 각 방을 들면서 아이들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 지켜보는 선생님들 또한 진지해졌다. 또한 대형성 보조교사를 두 인제 각 방마다 전문성이 돋보여 자부 계속되는 성경학교에도 보조 선생님들이 와주었던 것은 바쁘지만 나을 정도였다. 이후로 시간은 촛불예배 시간이었다. 각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 정예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각 과장 선생님들은 배정 음악이며 프린트 등 많은 준비를 해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날 유년부 어린이들은 졸린 잠을 깨기에 충분했다. 이날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미니 율동회였다. 각 조로 나누어 많은 게임을 하고 선생님들과 볼 품종도 나눠보고 신나는 게임을 했다. 예쁜 물자를 받고 집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바



쁘게 지나간 시간들이었다. 앞에서 진행하시는 선생님 부각 각 반 선생님, 간식을 챙겨 주시는 부강님, 그리고 언제나 기도롭게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 부장 장로님과 부강님 모두가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만의 성경학교가 아니었다.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성경학교였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잊었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년3부

8월 22일 '60대의 정신 건강' 특강

장년3부의 제2차 특강으로 60대의 정신건강을 준비하였다. 8월 22일(목요일) 12시 30분 교육관 307호에서 박종현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인생의 후반기 60대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총현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듣고 환문길에 접어들어 60대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노후가 더욱 아름답게 되기를 바란다.

법조인전도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법조인전도회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매주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계 관련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도 부탁드리며, 법조인전도회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 매주목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 12시 5분~12시 30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상담일 10시 30분까지 전화(구내전화 421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교육관 108호

